성남시, 성남형교육으로 '빛깔있는 학교' 만든다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 … 올해 1113억 배정

공평한 배움의 기회 제공 · 창의적 인재 양성

올해 1113억 원 예산 투입, 학교혁신 ·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경기 성남시는 올해 1113억원을 들여 '성남형교육 및 청소년 지원사업' 을 편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성남TV를 통해 유튜브에 라이브로 방송된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 주재의 시정 브리핑을 통해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은 성남시 156곳 모든 초 · 중 ·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9만5870명이다.

시는 '빛깔 있는 학교혁신' 을 목표로 학교별 특색사업, 학생자치사업, 동아리운영 지원 등에 62억 원을 지원한다.

또 안전, 환경, 민주시민, 문화예술 등 4개 분야 총 29개 지역특성화교육사업 프로그램에도 40억 원을 투입한다.

중 ·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상초 · 청솔초 영어체험센터와 청솔중 중국어체험센터 운영에 21억 원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또 133억 원 규모의 외벽교체공사 등 52개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16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을 펼친다. 14억 원을 투입해 30개 초 · 중학교에 학교청소년 복지상담도 지원한다.

고등학생 181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코딩, 반도체 등 미래형 진로교육을 272회 실시한다.

이 외에도 △36개 고등학교 진학상담, 진로멘토링, 진학컨설팅 추진 △대학생 반값 원룸 및 학습도우미 아르바이트 제공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재료 제공 △수정청소년 리모델링 및 야탑청소년수련관 개관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편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은 "공평하고 차별 없는 성남시만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별 역량을 키워 빛깔 있는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체 156곳 초 · 중 · 고등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온라인 학습도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제공에도 나섰다.

오유나 기자

전북체육회 올해에도 '청소년 스포츠안전캠프' 사업 선정

전라북도체육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를 진행한다.

전북체육회는 '2020 생활체육안전교실 스포츠안전캠프' 사업에 최근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캠프는 청소년들의 스포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도체육회는 오는 8월, 도내 초 · 중 · 고 학생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원 지리산 유스캠프에서 스포츠안전캠프를 진행 할 예정이다.

캠프는 스포츠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교육 등 이론교육을 비롯해 서바이벌 사격과 전통활 국궁체험, 명랑운동회, 미니올림픽 등 체험시간으로 꾸며진다.

도체육회는 특히 소외되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우선 모집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경우, 캠프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유인탁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스포츠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재미와 안전의식을 심어주겠다"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2019 생활체육안전교실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 사업 평가에서 인천과 세종체육회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이슬 기자

정읍 '월영습지' 와 '솔티숲' 전국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

전북 정읍시가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월영습지' 와 '솔티숲' 일원에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솔티숲은 197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장산 자락의 숲이다. 월영습지는 솔티숲과 연접하고 있는 습지로 2014년에 환경부에서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월영습지는 4곳의 습지로 구성되어 산 능선에 있던 산골 마을이 습지로 천이되어가는 자연의 역사를 담고 있다.

깃대종인 비단벌레와 진노랑상사화와 같은 멸종위기종과 733종의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다.

이에 정읍시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4년까지 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월영습지와 솔티숲 생태관광지의 첫 관문인 내장생태탐방마루길을 조각공원 인근에 조성해 내장호와 내장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풍경조망의 명소를 만들었고, 솔티숲과 솔티마을을 잇는 솔티숲 옛길을 복원 완료했다.

솔티숲 생태체험장에는 전문 생태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어린이를 위한 생태 놀이터, 성인을 위한 토박도예 공예작품인 풍경과 자연의 소리를 감상하는 명상터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2021년까지 탐방객을 위한 방문자 지원센터 건립도 계획 · 추진 중이다.

시설이 완공되면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자연자원을 전시 · 교육 · 홍보하고 탐방객에게는 생태 체험과 마을 생태 밥상 체험 등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등 생태관광 공동체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솔티마을 주민들의 생태관광에 대한 자부심과 활동 · 노력도 눈에 띈다.

주민 주도로 2016년 전국 생태관광 축제, 2018년 전라북도 생태관광 축제, 2019년 생태관광 네트워크 축제를 개최했고, 매년 솔티모시 마을 축제를 열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과 함께 하는 생태관광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도적 생태관광 활동이 높이 평가받아 2018년 전국에서 26번째로 국가 생태관광지로 지정받았다.

유진섭 시장은 "생태관광지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생태관광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현명하게 이용되는 모범적 사례로 지역주민 중심의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베란다 음악회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 자이 아파트에서 성동구청 주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베란다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성동구는 코로나19로 주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동형 무대 차량을 이용한 '베란다 음악회(찾아가는 음악공연)' 를 진행했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단기스탭 모집

7월 7일 부터 모집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이하 BIKY)는 오는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15회 영화제와 함께 할 적극적인 인재를 모집한다.

영화제를 사랑하고 어린이 청소년을 응원하는 열정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오는 5월11일부터 7월24일까지(팀별로 상세일자 상이)이며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학력제한은 없다.

프로그램팀은 북구지역 상영관 매니저 1명, 교육팀은 포럼 코디네이터 1명, 홍보팀은 상영관 북구, 중구지역 상영관 티켓매니저 1명씩 총 2명, 운영지원팀은 총무 1명으로 총 5명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5월3일까지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5월 7일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원서접수는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편 제15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어린이 청소년의 감수성과 공감역량, 사회성의 성장을 위하고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 안전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음성군, 대표음식 시식 · 평가회 가져

충북 음성군이 지난 20일 '지역자원을 접목한 대표 음식' 평가회를 열었다.

이날 감곡면에 있는 '궤짝' 식당에서 향토음식연구회 회원, 농업인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 음식 첫 시식회가 열렸다.

시식 · 평가회는 지역 식당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최적의 맛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대표음식 개발에 착수해 최근 지역 식당에 '고추 떡갈비' 기술을 이전했다.

농기센터와 식당 관계자는 떡갈비 식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 기계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김윤호 기자

한남대, 코로나19 재택 실습 지원

대전 한남대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면서 실험장비와 실습교구를 집으로 배달하는 '재택 실습 교육지원' 을 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강의형 수업과 달리 실습지도나 실험도구, 실험재료 수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실험실습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융합전공 실험전공 교과목 수강생 75명이 실험실습키트를 각자 집에서 받았다. 이로써 지도교수와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실험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남대 LINC+ 사업단은 지난해 ㈜캠트리, ㈜에코바이의학연구소 등 기업과 협력으로 코스메틱 사이언스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실험전공 교과목개발과 동시에 실험실습키트를 개발했다.

또 조형예술학부 회화과는 신입생 37명에게 물감과 앞치마, 스케치북 등 그림실습에 필요한 '그림키트' 배달을 마쳤다. 학생들이 실습한 작품에 대한 지도도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의류학과는 원단과 패턴지, 바늘, 실 등의 '공구함' 을 1학년 신입생 38명에게 지원했다. 융합디자인전공도 신입생 91명에게 디자인 기초 실습을 위한 마카펜과 색연필, 스케치북 등을 배달했다.

송희석 LINC+사업단장은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화과 박경범 학과장은 "실습이 주류를 이루는 학부는 교수진과 학생들의 교감이 중요한 만큼, 이번 지원을 계기로 마음을 함께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경이 낭만적인 대동하늘공원 '야간관광 100선' 선정

대전 동구는 '동구 8경' 중 5경인 대동하늘공원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 에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추천과 SK텔레콤 T맵의 야간시간대 목적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동하늘공원을 포함한 '야간관광 100선' 을 선정했다.

대동하늘공원은 지난 2009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후 랜드마크인 풍차와 더불어 좁은 골목을 따라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져 있어 힐링과 낭만, 추억을 찾는 시민들의 방문이 늘고 있는 곳이다.